

#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본협회에서는 현대사회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직 종이가 날로 늘어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같은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가 설립되고, 각 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익한 사업을 전개하므로써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기청“건축사 공제조합”설립을 계획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진행 및 목적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내용은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추진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총 3,852명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 '92. 5. 4~5. 23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였다.

본 설문분석은 '92. 5. 30일 현재까지 회신된 1,221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기재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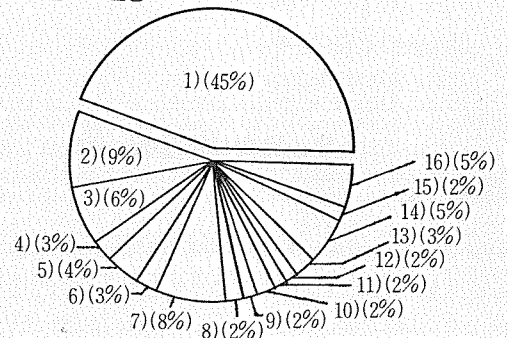
문1) 설문서 회신현황을 보면 '92. 5. 30 현재 총 1,221통이 회신되어 32%의 회신율을 보였으며 각 지역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다.

1) 서 울 :	1,813 명의 정회원 중 549 통이 회신되어 30%
2) 부 산 :	432 " 108 " 25%
3) 대 구 :	261 " 77 " 30%
4) 인 천 :	110 " 34 " 31%
5) 광 주 :	125 " 46 " 37%
6) 대 전 :	120 " 31 " 26%
7) 경 기 :	326 " 99 " 30%
8) 강 원 :	57 " 22 " 39%
9) 충 북 :	79 " 21 " 27%
10) 충 남 :	58 " 25 " 43%
11) 전 북 :	80 " 22 " 28%
12) 전 남 :	50 " 11 " 22%
13) 경 북 :	96 " 35 " 36%
14) 경 남 :	204 " 63 " 31%
15) 제 주 :	41 " 21 " 51%
16) 무기입 :	- 56

또한 응답자 1,221명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 |               |               |
|---------------|---------------|
| 1) 서 울 - 549명 | 9) 충 북 - 21명  |
| 2) 부 산 - 108명 | 10) 충 남 - 25명 |
| 3) 대 구 - 77명  | 11) 전 북 - 22명 |
| 4) 인 천 - 34명  | 12) 전 남 - 11명 |
| 5) 광 주 - 46명  | 13) 경 북 - 35명 |
| 6) 대 전 - 31명  | 14) 경 남 - 63명 |
| 7) 경 기 - 99명  | 15) 제 주 - 21명 |
| 8) 강 원 - 22명  | 16) 무기입 - 57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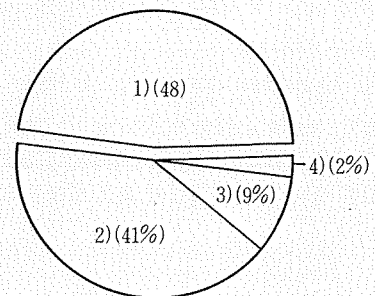
\*그림1) 지역별 회신분포 현황



※ 사무소 형태별 응답자 현황

- |          |            |          |           |
|----------|------------|----------|-----------|
| 1) 단독사무소 | 581명 (48%) | 3) 법인사무소 | 108명 (9%) |
| 2) 종합사무소 | 499명 (41%) | 4) 무기입   | 30명       |

\*그림2) 사무소 형태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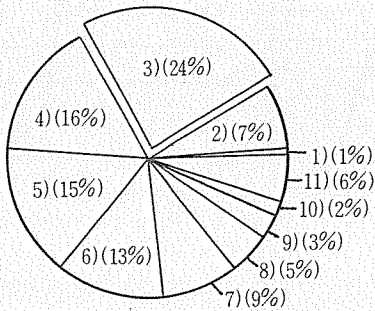


응답자를 사무소 형태별로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보면 단독사무소 중 서울회원이 214명 (37%), 지방회원이 367명 (63%)이고 종합사무소는 서울회원이 245명 (49%) 지방회원이 254명 (51%)이며 법인사무소는 108명 중 73%인 79명이 서울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2 참조)

※ 연령별 분포현황

1) 30세이하	9명 (1%)	7) 56세-60세	105명 (9%)
2) 31세-35세	90명 (7%)	8) 61세-65세	57명 (5%)
3) 36세-40세	295명 (24%)	9) 66세-70세	39명 (3%)
4) 41세-45세	196명 (16%)	10) 71세이상	21명 (2%)
5) 46세-50세	184명 (15%)	11) 무기입	68명
6) 51세-55세	157명 (13%)		

\*그림3) 연령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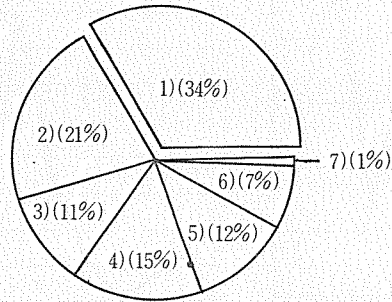


이상의 연령별 분포에서 보듯이 36세-40세가 전체응답자 1,221명중 295명 (2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41세-45세가 196명 (15%), 46세-50세 184명 (15%)으로 파악되었다. (그림3 참조)

문2) 건축사사무소 개설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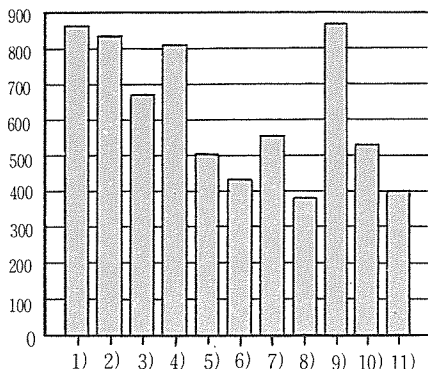
1) 5년미만	410명 (34%)	5) 20년이상-25년미만	141명 (12%)
2) 5년이상-10년미만	259명 (21%)	6) 26년이상	86명 (7%)
3) 10년이상-15년미만	130명 (11%)	7) 무기입	10명
4) 15년이상-20년미만	185명 (15%)		

\*그림4) 사무소 개설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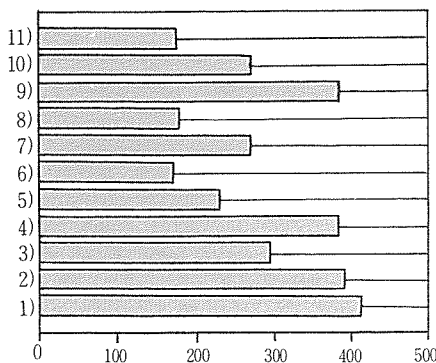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개설기간의 현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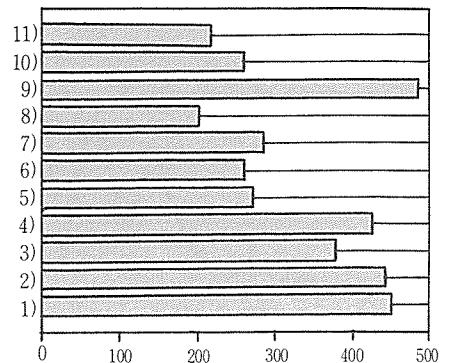
\*그림5) 공제조합 사업선택 (응답자 전체)



\*그림6) 공제조합 사업선택 (서울 회원)



\*그림7) 공제조합 사업선택 (지방 회원)



410명이 5년미만의 사무소 개설기간으로 나타나 가장 많고 5년이상-10년미만의 회원이 259명 (21%), 15년이상-20년미만 185명 (15%)으로 연령별 분포와 비교하여 불때 30,40대연령의 사무소 개설기간 10년미만의 회원이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무소 개설기간이 20년이상인 회원도 응답자의 20% 가까이 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4 참조)

※ 다음항목 (문3항)부터 (문8항)까지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회원 131명을 제외한 1,090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문5항 참조)

문3) 건축사공제조합 사업범위의 사항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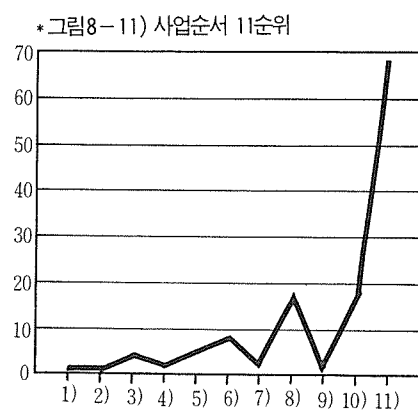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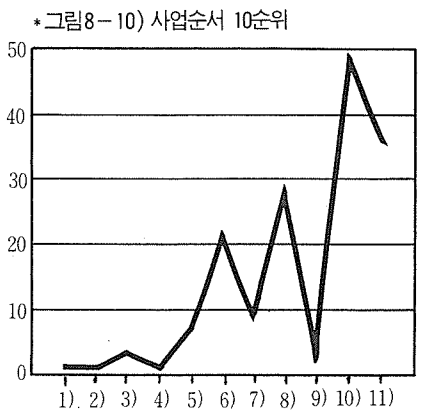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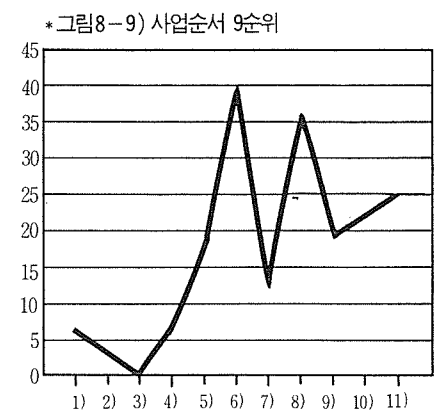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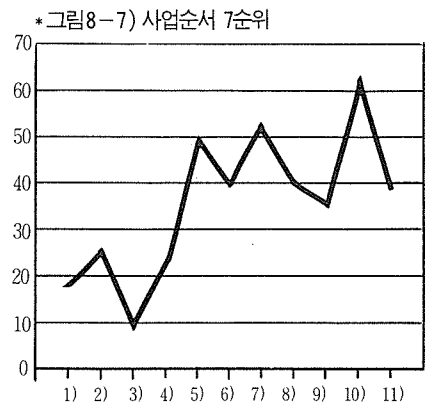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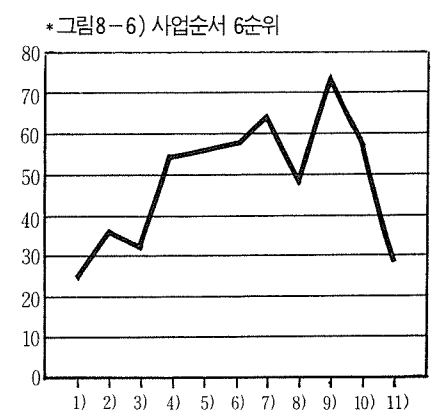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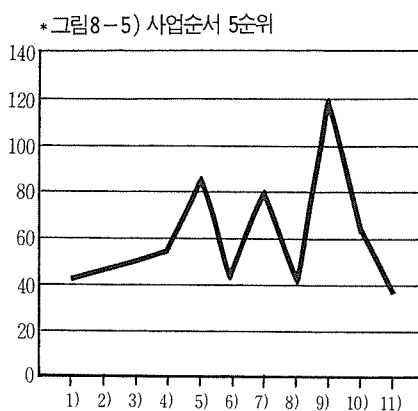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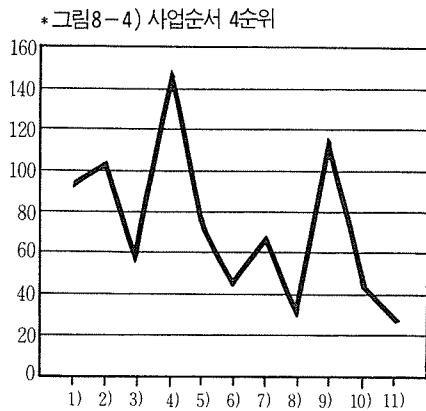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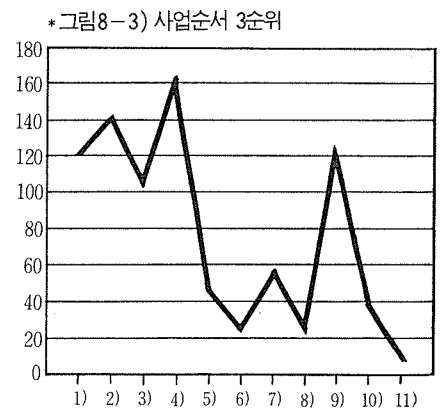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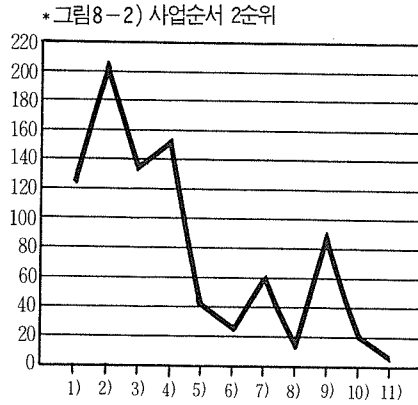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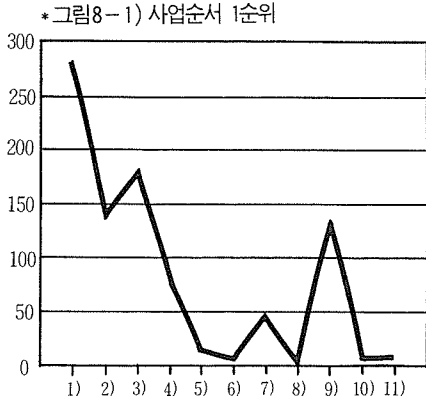
1) 금융융자업무	864명 (80%)
2) 소송대행업무 (건축사행정처분사항등)	834명 (77%)
3) 설계비 대납 (수납) 창구업무 (일정규모 설계비부터 단계별 시행)	672명 (62%)
4)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809명 (75%)
5) 건축사보조원 관리업무 (인력수급등)	502명 (46%)
6)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문구 및 필수품의 조달사업 (생산, 수입판매등 관여)	432 (40%)
7) 건축허가 업무대행 (전산화)	555명 (51%)
8) 선진장비구입 및 대여사업 (감정장비등)	380명 (35%)
9)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	871명 (80%)
10) 회원 및 보조원 주택마련의 주택조합 결성사업	529명 (49%)
1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역회관건립)	393명 (36%)

위의 사항을 보면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범위중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을 871명 (80%)이 응답하여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이 금융융자업무 864명 (80%), 소송대행업무 (건축사행정처분사항등) 834명 (77%),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809명 (75%), 설계비대납 (수납) 창구업무 672명 (62%) 순으로 사업을 선택하였다. (그림5 참조)

서울회원과 지방회원으로 구분하여 건축사공제조합 사업선택의 현황을 보면 서울회원은 1) 항 413명, 2) 항 392명, 9) 항 385명, 4) 항 384명, 3) 항 294명, 7) 항 270명, 10) 항 269명, 5) 항 230명, 8) 항 178명, 11) 항 175명, 6) 항 171명 순으로 사업선택을 하였으며, 지방회원의 경우 9) 항 486명, 1) 항 451명, 2) 항 442명, 4) 항 425명, 3) 항 378명, 7) 항 285명, 5) 항 272명, 6) 항 261명, 10) 항 260명, 11) 항 218명, 8) 항 202명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림6, 그림7 참조)

이상과 같이 볼때 9) 항 건축사세율 조정사업, 1) 항 금융융자업무, 2) 항 소송대행업무,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3) 항 설계비 대납 (수납)창구업무 등이

지역별 구분없이 상위순위에 높은 분포로 선택된 것을 미루어 보면 건축사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건축사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제조합사업 항목에서 사업순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업순서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항	279	122	122	93	42	25	18	9	6	1	1	718
2) 항	136	203	141	102	47	36	25	9	3	1	1	704
3) 항	178	134	104	55	50	32	9	11	-	3	4	580
4) 항	78	149	164	148	55	54	22	12	7	1	2	692
5) 항	14	42	47	73	86	55	49	30	18	7	5	426
6) 항	5	26	25	45	44	57	39	40	40	21	8	350
7) 항	45	59	56	65	81	63	52	28	12	9	2	472
8) 항	2	15	23	29	40	48	40	34	36	28	17	312
9) 항	131	89	122	114	119	72	35	14	19	1	1	717
10) 항	7	22	39	46	66	58	63	48	22	49	17	437
11) 항	6	6	9	28	37	28	39	37	25	36	68	319

조합의 사업순서 항목에서 공제조합 설립시 먼저 벌여야 할 사업순서의 1순위는 1) 항 금융융자업무가 27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 항 설계비대납 청구업무 178명, 2) 항 소송대행업무 136명, 9) 항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 131명,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78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2) 항 소송대행업무 203명,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149명, 3) 항 설계비 대납 (수납) 청구업무 134명, 1) 항 금융융자업무 122명 순이었다. 또한 3순위는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164명, 2) 항 소송대행업무 141명, 9) 항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 122명, 1) 항 금융융자업무 122명 순으로 꼽았다. (그림8 참조)

또한 응답자 1,090명의 연령별 사업순위의 기재내용을 5순위 까지만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순위	30대 303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83명, 3) 항-55명, 2) 항-36명, 9) 항-29명, 4) 항-23명				
2순위	2) 항-67명, 1) 항-44명, 4) 항-37명, 3) 항-35명, 7) 항-22명				
3순위	3) 항-53명, 2) 항-52명, 9) 항-35명, 1) 항-32명, 3) 항-35명				
4순위	4) 항-44명, 9) 항-39명, 1) 항-35명, 2) 항-30명, 10) 항-20명				
5순위	9) 항-44명, 7) 항-37명, 4) 항-22명, 5) 항-22명, 2) 항-15명				
순위	40대 373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85명, 3) 항-59명, 2) 항-53명, 9) 항-50명, 4) 항-23명				
2순위	2) 항-56명, 4) 항-53명, 3) 항-45명, 1) 항-43명, 9) 항-42명				
3순위	9) 항-56명, 4) 항-53명, 1) 항-49명, 2) 항-40명, 5) 항-20명				
4순위	4) 항-43명, 9) 항-35명, 5) 항-33명, 2) 항-31명, 1) 항-30명				
5순위	9) 항-32명, 5) 항-28명, 4) 항-23명, 5) 항-21명, 7) 항-20명				
순위	50대 231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69명, 3) 항-43명, 9) 항-27명, 2) 항-25명, 4) 항-18명				
2순위	2) 항-47명, 4) 항-39명, 3) 항-32명, 1) 항-18명, 5) 항-13명				
3순위	2) 항-36명, 4) 항-28명, 1) 항-28명, 3) 항-24명, 5) 항-16명				
4순위	4) 항-39명, 2) 항-28명, 9) 항-23명, 1) 항-17명, 5) 항-14명				
5순위	9) 항-30명, 5) 항-24명, 7) 항-16명, 3) 항-12명, 10) 항-12명				
순위	60대이상 119명의 기재사항 및 인원수				
1순위	1) 항-31명, 9) 항-16명, 3) 항-16명, 2) 항-15명, 4) 항-3명				
2순위	2) 항-20명, 3) 항-17명, 9) 항-11명, 1) 항-9명, 4) 항-9명				
3순위	4) 항-25명, 3) 항-11명, 9) 항-11명, 1) 항-7명, 2) 항-7명				
4순위	4) 항-13명, 9) 항-12명, 5) 항-9명, 2) 항-6명, 1) 항-5명				
5순위	5) 항-9명, 9) 항-8명, 6) 항-7명, 4) 항-5명, 1) 항-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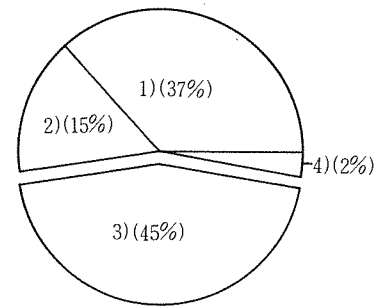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업순서나 연령별 분포에서의 공제조합 사업순서를 보면 1) 항 금융융자업무, 2) 항 소송대행업무, 3) 항 설계비 대납 (수납) 청구업무, 4) 항 업무 (설계, 감리등) 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9) 항 건축사 세율 조정사업 등이 상위순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건축사 공제조합의 사업방향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요사항이 되리라 본다.

**문4) 건축사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 총당 방안**

- 1) 기적립된 연금기금등을 활용하는 방안 405명 (37%)
- 2) 신설되는 공제출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173명 (16%)
- 3) 연금기금과 공제출자금의 병용 활용하는 방안 487명 (45%)
- 4) 무기입 25명 (2%)

건축사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 총당방안으로는 기존의 연금기금의 활용이 405명, 연금기금및 공제출자금 병용활용이 487명으로 나타나 공제조합 설립의 찬성자 1,090명중 892명 (82%)이 연금기금의 활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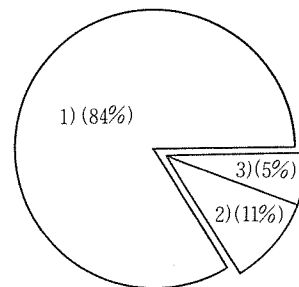
\*그림9) 공제조합의 초기단계운영비 방안



**문5) 건축사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1) 꼭 필요하다 1,023명 (84%)
- 2) 필요하지 않다 131명 (11%)
- 3) 무기입 67명 (5%)

\*그림10) 공제조합의 필요성



총 응답자 1,221명중 건축사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회원이 1,023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원이 공제조합 설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분포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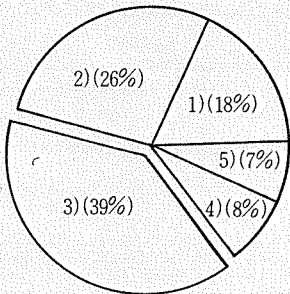
지역	응답자	찬성자	비율	지역	응답자	찬성자	비율
서울	549	459	84%	충북	21	14	67%
부산	108	94	87%	충남	25	22	88%
대구	77	54	70%	전북	22	18	82%
인천	34	29	85%	전남	11	11	100%
광주	46	41	89%	경북	35	26	74%
대전	31	27	87%	경남	63	57	90%
경기	99	90	91%	제주	21	18	86%
강원	22	19	86%	무기업	57	44	77%

**문6)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적당한 공제출자금 1구좌당 금액**

- 1) 10,000원 197명 (18%)
- 2) 50,000원 302명 (28%)
- 3) 100,000원 428명 (39%)
- 4) 500,000원 89명 (8%)
- 5) 무기입 74명 (7%)

공제출자금 1구좌당 금액이 10만원이 적당하고 응답한 회원이 428명으로 응답자 1,090명의 39%를 차지하고 다음이 5만원이 302명 (28%)으로 파악되어 공제출자금은 1구좌당 5만원내지 10만원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입자가 다른문항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보아 공제출자금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없어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참조)

\*그림11) 공제 출자금 1좌당 금액



**문7) 조합원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1) 모든회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05명 (46%)
- 2) 회원으로서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65명 (52%)
- 3) 무기입 20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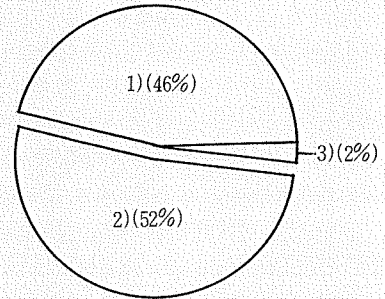
건축사 공제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항목에서는 모든회원의 자격취득과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만 조합원 자격취득의 양자 의견이 거의 대등하여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요망된다. (그림12 참조)

한편 조합원 자격취득에 대하여 연령별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 1,090명중 30대 303명의 162명 (53%)은 모든회원은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138명 (46%)이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40대연령 (373명)에서는 159명 (43%)이 모든회원의 자격취득이, 207명 (55%)이 출자에 의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0대연령 (231명)에서는 모든회원의 자격취득이 102명 (44%),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해서만 자격취득이 125명 (54%)으로 나타났고 60대이상 (119명)의 연령에서는 48명 (40%)연이 모든 회원 자격취득, 68명 (57%)이 출자에 의한 자격취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을 볼때 30대에서는 모든회원의 조합원 자격취득 의견이 다소 많았으나 40대이후 50,60대이상의 회원은 공동출자금 출자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취득의 의견이 우세한 편으로 나타나 연령층의 의견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12) 조합원의 자격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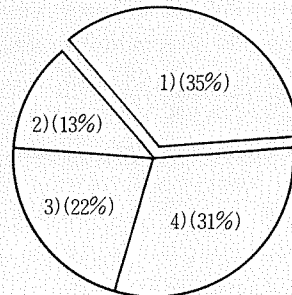


**문8)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에 관한 의견(복수응답)**

- 1) 건축사 면허취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될때 598명 (55%)
-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을때 214명 (20%)
- 3) 협회로부터 제명될때 367명 (34%)
- 4) 자진 폐업시 521명 (48%)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에 관하여 1,090명의 응답자중 598명 (55%)이 건축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될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자진폐업시 조합원 자격상실이 521명 (48%), 협회로부터 제명될때가 367명 (34%)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원은 건축사 업무의 중단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3 참조)

\*그림13) 조합원자격상실에 관한 현황



**문9)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

마지막 문항에서는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총 417명이 기재를 하였으나, 본 설문내용과 관련내용이 없는 기재내용은 제외하고 상호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14,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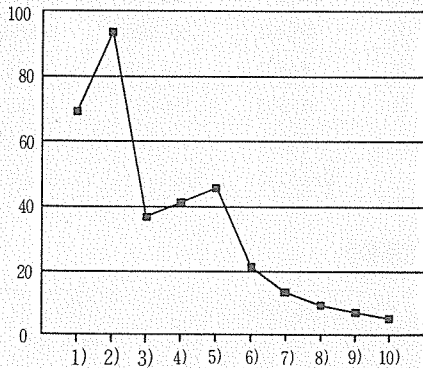
※ 공제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응답자 기재내용 - 342 사항기개

- 1)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운영 69명  
(금융융자, 설계비대납창구업무, 법적소송업무, 위탁편의시설, 계약 및 하자보증사업등 실시)
- 2) 회원 및 협회의 사회적 위상정립을 위한 조속한 공제조합 설립 94명
- 3) 협회조직의 일원화(복지회, 신협 등 통합 또는 확대운영) 37명
- 4) 공제조합설립의 적극적인 홍보 (협회지홍보, 공청회실시) 41명
- 5) 공제조합설립의 다각도 연구 검토후 설립추진 (타조합연구) 46명
- 6) 각지역 건축사회별로 공제조합결성 21명
- 7) 공제조합 주식의 균등한 출자에 의한 공평한 혜택 13명
- 8) 조성된 연금기금의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의 전환 9명
- 9) 조합원 자격의 모든회원 의무가입 7명
- 10) 기타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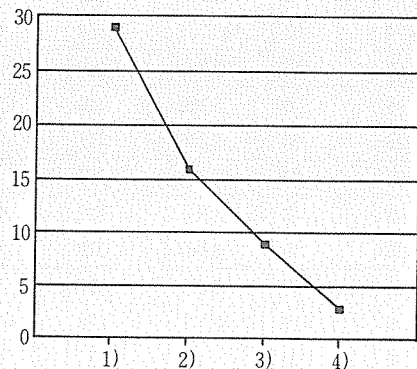
※ 공제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회원의 기재사항 - 57명

- 1) 공제조합 운용상의 공평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29명
- 2) 기존의 복지회, 신협 및 연금제도와의 사업내용 상충 16명
- 3) 협회기구확대 및 관리운영비 성향의 예산지출억제 9명
- 4) 기타 3명

\*그림 14) 조합설립의 찬성회원 기재사항



\*그림 15) 조합설립의 반대회원 기재사항



**3. 설문조사 분석결언**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협회 업무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회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공제조합의 설립에 강경하게 반대한 회원들도 있었으며 더불어 공제조합의 설립 배경, 목적 등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설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회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본 설문서 1,221통이 전체 회원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전 회원의 30%를 상회하고 또한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에 관심이 있는 회원의 응답이므로 어느정도 회원의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여 찬반 양측의 토론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타전문직종 공제조합의 준비단계,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관하여 응답자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므로써 대부분의 회원들이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제조합 설립의 이유로는 협회 (공제조합)가 진정한 건축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축사 및 협회 (공제조합)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축사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금융융자업무, 소송대행업무, 설계비대납 (수납)창구업무, 업무 (설계, 감리)크레임에 대한 대처사업, 건축사세울 조정사업 등이 각각 80%가까이 선택됨으로써 공제조합 설립시 선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 4) 공제조합설립에 있어서 별도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복지회나 신협 등을 흡수, 통합하므로써 협회 기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각 지역별로 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5) 공제조합의 초기단계 운영비의 충당방안으로는 공제조합 설립의 찬성회원 중 82%가 기적립된 연금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6) 조합원의 자격취득에 관하여는 모든회원의 의무가입 의견과 공제출자금 출자에 의한 자격취득 의견이 서로 균등하여 회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설립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제조합의 필요성, 공제조합의 기능, 성격,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복지회, 신협 등의 처리문제, 관리운영의 방안 등을 제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으며, 타 전문직종의 공제조합을 모델 삼아 운영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연구검토하여 그 자료 등을 활용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